

# 게임 규칙 그대로...차용이나 표절이나

### 엔씨소프트 "인터페이스·수익모델 베꼈다" 게임사 상대 소송 게임업계 "혁신 없는 '카피캣' 만드는 관행 업계 전반 질 악화"

국내 여러 게임사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일대가 게임 지식재산(IP)권 관련 소송으로 떠들썩하고 있다. 부적 내용은 제각기 다르지만, 공통으로 '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표절인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카카오 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출시한 다중접속액션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작 게임 '리니지2M'의 콘텐츠, 시스템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근거자료를 내고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 게임플레이를 돕는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스템은 게임 플레이 경험과 수익모델(BM)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엔씨소프트 측 설명이다. '아키에이지 워'를 서비스하는 카카오게임즈, 제작사인 엑스엘게임즈는 이날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와 각종 기능이 법정에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에도 웹젠의 MMORPG 'R2M'이 2017년 작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진행된 사건 변론기일에서 웹젠 측은 '리니지M과 그 기반이 된 리니지의 강화 시스템, 무계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 수행게임(RPG) '넛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된 '넛핵'의 플레이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또 리니지M에서 경험치·아이템 획득률을 높여주는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이 R2M에서 '유피테르의 계약'으로 이름만 바뀌 서비스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엔씨소프트 측은 게임의 제작 의도, 표현 방식을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

원 판례를 들며 "피고(웹젠) 게임은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건과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넥슨이 '다크 앤다카'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측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사건의 요지는 아이언메이스 개발진이 넥슨에서 퇴사하며 미출시 프로젝트인 'P3'의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스 측은 '문제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게임의 콘셉트와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없다'며 개발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앞서 성공한 게임의 시스템과 BM(수익모델)을 개발 과정에서 그대로 베끼는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반응이다.

판교의 한 게임 개발자는 "성공적인 다른 게임을 본보기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혁신 없는 '복사 & 붙여넣기' 수준의 게임이 양산된다면 한국 게임 업계 전반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만 보고 개발자들에게 '카피캣' 게임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경영진도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전남지방우정청, 복지등기우편서비스 확대 위기가구 51건 발굴, 취업 알선 등 복지서비스 제공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광주 북구, 전남 영광군에서 시범 운영한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4월부터 6개 지자체로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는 우체국과 지자체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광주시 북구, 영광군 2개 지자체에서 총 1981통의 우편물을 발송해 위기가구 51건을 발굴해 취업 알선, 기초생활수급 신청, 주거급여 신청, 물품 지원 등 357가구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 3월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4개 지자체(광주시 동구, 광주시 서구, 광주시 광산구, 무안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관호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과 지자체



광주우체국과 광주 동구청이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한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우체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국립광주과학관, 청소년 홍보소통단 루체스타 7기 모집

### 20일까지 접수, 연말까지 활동

국립광주과학관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루체스타 7기'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호남권역 청소년(초등 4학년~고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총 100명의 단원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국립광주과학관의 빛나는 별을 뜻하는 루체스타(Lucestar)는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7기를 맞이했으며 매년 규모가 커져 호남권역 대표 청소년 대외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종 우수활동 단원에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상, 광주시장상, 국립광주과학관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내용은 ▲과학관 전시·교육 등의 행사 참여와 홍보활동 ▲과학 실험, 콘텐츠 제작 등의 과학문화 확산 활동 ▲콘테스트 참여 등이다.

루체스타 단원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특별기획전·특수영상관 무료이용(월1회, 동반 3인까지) ▲1일교육프로그램 무료 이용(월1회, 단원한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봉사활동 실적 인정 ▲매월·연말 우수 활동단원 선정 시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명, 광주광역시장상 1명, 국립광주과학관장상 10명) 등 대외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국립광주과학관 대외협력홍보실(062-960-6173)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KT엠모바일 '아무나 결합' 출시...무료 데이터 최대 20GB

KT엠모바일은 알뜰폰 업계 최초로 가족, 친구가 아닌 가입자 사이에서 결합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무료 데이터 월 최대 20GB 제공하는 '아무나 결합'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결합 서비스가 가능한 요금제 이용자라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KT엠모바일 사용자와 결합을 통해 최신타 매월 최대 20GB 무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점 방문이나 구비 서류 제출 없이 '다이렉트몰'에서 신청할 수 있다.

KT엠모바일은 "24개월간 매월 최대 15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득' 요금제 출시 결과 가입자 60% 이상이 20~30대로 나타났다"며 "아무나 결합" 출시로 데이터 소비가 많은 MZ세대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여성·흑인 최초로 달 궤도에 간다... '아르테미스' 비행사 4명 확정

### 내년 11월 열흘간 임무 수행

여성과 흑인 우주비행사가 처음으로 달 궤도에 나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캐나다우주국(CSA)은 지난 3일(현지시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진행되고 있는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Artemis) 프로젝트 가운데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2단계 임무를 수행할 우주비행사 4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4명의 우주비행사 중에는 여성인 크리스티나 코크(44)와 흑인인 빅터 글로버(46)가 포함됐다. 달궤도를 비행하는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으로 기록될 코크와 글로버는 각각 '미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와 파일럿 역할을 맡는다. 두 사람 외에 베데랑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47)이 팀장으로,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한센(47)이 또다른 미션 스페셜리스트로 뽑혔다.

아르테미스 미션의 첫 여성 우주비행사인 코크는 과거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비행 엔지니어로 총 328일간 머물며 여성 우주비행사 최장기 체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코크는 이날 공개된 NASA의 유튜브 소개 영상에서 "어릴 때 아폴로8에서 찍힌 지구 사진 포스터를 갖고 있었는데, 사진 렌즈 뒤에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심오하고 놀라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흑인인 글로버는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2020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을 타고 ISS에 도착해 우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수행할 우주비행사 4명.

주정거장 20년 역사에서 첫 흑인 탑승자가 된 바 있다. 이번 임무가 그의 두 번째 우주비행이다.

한센은 캐나다를 대표해 우주비행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그는 캐나다 육군 대령이자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캐나다인 최초로 NASA 우주비행사 교관을 지낸 바 있다.

캐나다는 달 궤도에 설치될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Lunar Gateway)에 부착할 로봇팔인 '캐나다담(Canadarm) 3'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번 우주비행사 선발로 미국에 이어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와이즈먼은 해군 조종사로 활동하다 2009년 우주비행사가 된 뒤 2014년 6개월간 ISS에서 비행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앞서 남성 후보 중에는 2020년 NASA 우주비행사로 뽑힌 한국계 의사 출신 조니 김 씨가 포함돼 관심을 모았지만, 최종 선발은 되지 못했다.

선발된 우주비행사 4명은 내년 11월께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에 탑재돼 발사되는 우주선 '오리온'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임무를 열흘에 걸쳐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미당 | 부여사비 창작지구

문의 전화 **1644-6430** |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